

## 요한 1서의 구조

길 성 남\*

### I. 서론

요한일서는 일반적으로 서신서로 분류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서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헌이다.<sup>1)</sup> 서두와 결론부분에 인사말과 송영이 빠져있다. 또 수신자의 이름은 물론 3:12의 '가인'이외에는 개인의 이름 조차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때문에 요한일서의 문학형식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sup>2)</sup>

그러나 문학양식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요한일서의 구조이다. 얼른 살펴보면 요한일서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사랑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과의 사귄,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등이 중요한 단락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들도 일정한 논리적 흐름없이, 서로간의 깊은 관련성도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래서 W. Marxsen은 말하기를 "저자의 진술은 전혀 조리가 서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문헌을 (일정한 주제 아래)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sup>3)</sup> 즉, 요한일서에는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것이다.<sup>4)</sup> 이런 견해에 따르면 요한일서를 일정한 주제에 따라서 분석하는 것이나, 거기서 일정한 형태의 구조를

\* 88년 신학대학원 졸업. 현 동대학원 Th.M 수학생

- 1) Kümmel, W.G.,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tr. by H.C. Kee, (New York: Abingdon Press, 1973), P. 437; D. Guthrie도 본 서신서가 당시 서신서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의 *New Testament Introduction* (Illinois: IVP, 1970), p. 873.
- 2) D. Guthrie는 본 서신서가 서신서라기 보다는 설교(homily)에 더 가깝다고 하였다. 앞의책, p. 873; W.G. Kümmel은 논문(tractate)이나 일종의 선언서(mamifesto)라고 하였다. 앞의책, p. 437.
- 3) Marxsen, W., *Introductin to the New Testament* tr. by G. Buswel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6), p. 261.
- 4) Kümmel, W.G., 앞의책 p. 435.

찾아내려는 시도는 무익하거나 또한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sup>5)</sup> 심지어 R. Bultmann은 요한일서 1:1-5:13을 단일한 하나의 저작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다.<sup>6)</sup>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요한일서(이후로는 본서신서)가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분명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저마다 저작자의 의도에 상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 R.E. Brown은 말하기를 심지어 본서신서의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 무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주석을 쓰고 배열하기 위해서 거칠기는 하지만 본서신서를 일정한 주제에 따라서 나누고 있음을 지적한다.<sup>7)</sup>

그렇다면 본서신서에 일정한 유형의 구조가 있다는 것인가? 있다면 그 구조는 어떤 유형의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찾아 내려는 시도조차도 무익한 것인가? 지금까지의 격렬한 논의를 통해서도 이 문제에 관해 통일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서신서의 구조에 대한 토론은 아직까지도 열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글에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고 그들의 대략적인 일치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본서신서의 문맥과 내용을 살펴보고 단락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난 뒤에 본서신서의 기록목적과 관련해서 그 구조를 제시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 II. 요한일서의 구조에 대한 여러 견해

### 1. "하나님은 .....이시다"구조

A. Feuillet, P.E. Jones, E. Malatesta 등은 '하나님은 빛이시다'(1:5), '하나님은 사랑이라'(4:8), '그의 의로우신 줄을'(2:29)과 같은 중요한 진술에 따라서 본서신서의 구조를 제시한다. 특히 P.R. Jones는 본서신서를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고 그 부분들의 명칭을 '하나님은 빛이시다'(1:5-2:27), '하나님은 의로우시다'(2:28-4:6), '하나님은 사람이시다'(4:7-5:

5) Brooke, C.A.E., *The Johannine Epistles*(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80), p. xxxii; Marshall, I.H., *The Epistles of John*(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4), p. 26.

6) Bultmann, R., *The Johannine Epistles*, tr. by R. philp O'Hara, L.C. MacGaughey & R.W. Funk,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3), p. 2.

7) Brown, R.E., *The Epistles of John*(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 co, 1982), p. 117; 요한일서에 구조가 있다고 보고 구조를 제시한 학자들에 대해서는 본 논문 pp. 5-22 참조.

12)라고 하였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구조 제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과연 그 세개의 진술들이 실제로 저자가 자신의 저작 계획의 원리로서 제시한 열쇠일 수 있는가? 또 본서신서를 세부분, 혹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적절한 주제 문장일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빛이시다'(1:5)는 하나의 독립된 구성단위를 시작하는 주제문장이다. 그러나 4:8은 주제문장이라기 보다는 4:7에 속해있는 문장이다. 또 2:29도 하나님을 가리키기 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가리킨다.<sup>9)</sup> 그러므로 "하나님은.....이시다"식의 전술에 근거해서 본서신서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sup>10)</sup>

### 2. 교리/교훈의 이중적 구조

Michl, T. Häring, W. Kümmel, W. Marxen 등은 본서신서를 신약성경의 다른 서신서와 같이 교리적(doctrinal)부분과 교훈적(hortatory)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나 요한일서의 경우에는 교리적/교훈적 유형이 전, 후반부 두 부분으로가 아니라 전체 서신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Michl은 본서신서 전체를 6부분으로 나누고 1, 3, 5부분(1:5-2:17; 2:28-3:24; 4:7-5:4)을 교훈적 부분, 2, 4, 6부분(2:18-27:4:1-6; 5:5-12)을 교리적 부분이라고 하였다.<sup>11)</sup>

Häring은 전체 서신서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이 윤리적 논제(ethical thesis), 기독교론적 논제(christological thesis)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sup>12)</sup> W. Kümmel도 Häring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여 지지하나 그것은 하나의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13)</sup> 이밖에도 Belser, Giurisato등이 이런 입장에 서있다.

이러한 시도는 본서신서가 윤리적인 면과 기독교론적인 면에서 잘못을 범한 당시의 분열주의자들을 반박하고 수신자들에게 그 두가지 측면에서 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요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I. H. Marshall은 T. Häring의 구조가 매우 인위적인 것이며 과연 저자가 그런 방법으로 자료를 계획, 배열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하였다.<sup>14)</sup> 그러나 그

8) Marshall, I.H., 앞의 책, p. 24.

9) Marshall, I.H., 앞의 책, p. 27.

10) Brown, R.E. 앞의 책, p. 121.

11) Brown, R.E., 앞의 책, p. 120.

13) kümmel, W.G., 앞의 책, pp. 436-37.

14) Marshall, I.M., 앞의 책, p. 27.

는 자신의 비판을 지지해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T. Häring이 제시한 구조이다.

서론 1:1-4

A. 제일의 순환(1:5-2:27)

1. 윤리적 논제 — 하나님과의 사귄에 대한 참된 표식으로서의 빛가운데 행함(1:5-2:17)
2. 기독교적 논제 — 하나님과의 사귄의 시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2:18-27)

B. 제이의 순환(2:28-4:6)

1. 윤리적 논제 —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으로서의 의를 행함(2:28-3:24)
2. 기독교적 논제 —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고백함(4:1-6)

C. 두가지 논제의 결합

1. 믿음의 토대로서의 사랑(4:7-21)
2. 사랑의 토대로서의 믿음(4:7-21)

결론 5:13-21<sup>15)</sup>

3. 나선형 구조

R. Law, Houlden, Coetzee 등은 본 서신서가 나선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R. Law가 제시한 구조는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6)</sup> 요한일서의 사상이 나선형으로 진전된다는 것은 고전적인 견해로서 동일한 사상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점차 높은 단계로 발전해나간다는 것이다.<sup>17)</sup> 따라서 이것은 여러 개의 논증의 순환단위로 구성된다. 이런 견해를 처음 제시한 R. Law는 본 서신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서 분리주의자들의 주장의 진실성에 대한 세가지 시험, 즉 의, 사랑, 믿음에 의한 시험을 제시한다. 다음은 R. Law의 구조이다.<sup>18)</sup>

서론 1:1-4

1. 첫째 사이클: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 빛가운데 행함(1:5-2:28)

- ① 의에 의한 시험(1:8-2:6)
- ② 사랑에 의한 시험(2:7-17)
- ③ 신앙에 의한 시험(2:18-28)

2. 둘째 사이클: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2:29-4:6)

- ① 의에 의한 시험(2:29-3:10a)
- ② 사랑에 의한 시험(3:10b-24a)
- ③ 신앙에 의한 시험(3:24b-4:6)

3. 세째 사이클(4:7-5:21)

제 1부: 사랑(4:7-5:3a)

- ① 사랑의 기원(4:7-12)
- ② 믿음과 사랑의 종합(4:13-16)
- ③ 사랑의 영향, 동기, 그리고 현현(4:17-5:3a)

제 2부: 신앙(5:3b-21)

- ① 그리스도인 신앙의 힘, 내용, 토대, 문제(5:3b-12)
- ② 그리스도인 신앙의 확신(5:13-21)

이 구조의 약점은 첫째, 둘째 사이클에서 공통되게 나타난 세 개의 주제가 세번째 사이클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J.L. Houlden은 본 서신서가 많은 수의 논증의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 사이클들은 나란히 연결되어 회전하는 일련의 디스크와 같다. 그는 다소 색다르게 본 서신서를 7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다.<sup>19)</sup>

J.C. Coetzee는 본서신서가 같은 형식을 가진 네 개의 커다란 논증의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이클을 통해서 일정한 내용이 진전, 발전되고

19) Houlden, J.L., *A commentary on the Johannine Epistles*(New York: Harper & Row, Pub., 1973), p. 23. 다음은 Houlden의 구조분석이다.

- ① 1:5-2:11, 빛과 어두움
- ② 2:12-17, 매우 특징적인, 장엄한 교훈의 귀절
- ③ 2:18-27, 부인과 고백
- ④ 2:28-3:24, 하나님의 자녀됨과 마귀의 자녀됨
- ⑤ 4:1-6, 두 종류의 영
- ⑥ 4:7-21, 사랑의 본성과 요구
- ⑦ 5:1-12, 승리와 증거

15) Brooke, A.E., 앞의 책, pp. xxxii-xxxviii, Marshall, I.M., 앞의 책, p. 23.

16) Brown, R.E., 앞의 책, p. 121.

17) Marshall, I.H., 앞의 책, p. 22.

18) Brooke, A.E., 앞의 책, p. xxxvii.

있다고 본다. 그가 제시한 본 서신서의 구조분석은 다음과 같다.<sup>20)</sup>

A. 하나님은 빛이시다(1: 1-2: 27)

1. 하나님께 받은 것(1: 1-4)
2.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부르심(1: 5-2: 11)
  - ① 죄를 짓지 말라(1: 5-2: 2)
  - ② 그의 계명을 지키라(2: 3-6(8))
  - ③ 형제사랑(2: 8(6)-11)
3. 하나님 안에 사는 자의 승리
  - ① 악한 자에 대한 승리(2: 12-14)
  - ② 세상에 대한 승리(2: 15-17)
  - ③ 적그리스도에 대한 승리(2: 18-27)

B.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2: 28-4: 6)

1. 하나님께 받은 것(2: 28-3: 2)
2. 부르심—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라(3: 3-24)
  - ① 죄를 짓지 말라(3: 3-10)
  - ② 형제사랑(3: 11-20)
  - ③ 계명의 준수(3: 21-24)
3.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의 승리
  - ① 적그리스도에 대한 승리(4: 1-6)

C. 하나님은 사랑이시다(4: 7-5: 5)

1. 하나님께 받은 것(4: 7-10, 13)
2. 부르심—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라(4: 11-5: 3)
  - ① 형제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4: 11-5: 1)
  - ② 계명의 준수(5: 2-3)
2.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의 승리
  - ① 세상에 대한 승리(5: 4-5)

D. 성령은 참 증거이다(5: 6-21)

1. 하나님께 받은 것(5: 6-12)
 

5: 13 요한일서의 목적과 주제
2. 부르심—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싸우라(5: 14-17)
  - ① 죄에 대한 싸움

3.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의 승리

- ① 악한 자에 대한 승리(5: 18)
- ② 세상에 대한 승리(5: 19)
- ③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 그리스도의 거짓에 대한 승리)

이상의 구조분석이 보여주듯이 Coetzee의 구조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치밀하다. 본 서신서 전체를 네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삶에로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승리로 나누어져 있음을 밝히고, 또한 부르심의 부분을 죄, 계명, 형제사랑으로, 승리의 부분을 악한자, 세상, 적그리스도에 대한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한 점은 서신서의 구조를 밝혀내려는 치밀하면서도 현신적인 Coetzee교수 자신의 노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구조분석의 핵이자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1: 1-4; 2: 28-3: 2; 4: 7-10, 13; 5: 6-12), 즉 케리그마이다. 이것에 근거해서 그 메시지가 소개하는 삶에로의 부름—권면이 따르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제시된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서신서의 저자가 이런 구조계획에 따라서 본서를 썼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네 개의 사이클 가운데서 온전한 형태를 갖춘 것은 첫째 사이클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불완전하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부분과 '그리스도인의 삶에로의 부름'은 본문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하나 '그리스도인의 승리'부분은 본문의 내용에 근거하기보다는 구조 자체에 의해서 본문이 질식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2: 15-17은 세상에 대한 승리라기보다는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며, 2: 18-27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4: 1-6은 영분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단락들을 승리의 항목 아래 분류한 것은 구조가 본문을 결정지은 한 예로 볼 수 있다.

4. 자유로운 내적 구조

이상의 나선형 구조에 대해서 Painter는 "대적자들에 대한 저자의 반응인 다양한 구성단위는 사상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관련성은 시종일관하는 논증의 발전성을 제공해주지는 않는다"<sup>21)</sup>라고 하였다.

또한 I.H. Marshall은 본 서신서의 단락 서로 간의 관계가 논리적인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관련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더

20) Coetzee, J.C., *Theme and Structure of I John* (이승미교수, 신약성경해석학 강의 안, 고신대학 대학원, 1988), pp. 1-2.

21) Brown, R.E., 앞의 책, p. 122에서 재인용.

나아가서 그는 모든 자료들을 단일 주제 아래, 어떤 한 가지 주요 부분 안으로 모으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본 서신서를 일정한 주제 아래 묶어서 제시하기 보다는 흐름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분석 제시했다.<sup>22)</sup>

그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R. Law의 단락구분에 따라서 2:27(28), 4:7에서 단락의 중요한 분기점을 찾고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음에 주목한다.<sup>23)</sup> 그러나 그는 R. Schnackenburg의 견해를 좇아서 2:18, 4:1을 둘째, 셋째 부분의 출발점으로 간주한다.<sup>24)</sup> 이것은 2:12-14, 15-17, 그리고 4:1-6이 아킬레스의 발꿈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어떤 분석과도 어울리기 힘든 연결부분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본 서신서에서 그러한 외적 구조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sup>25)</sup> 만일 본서신서에 구조가 있다면 사상적인 관련성을 부여하고 있는 내적 사상구조, 그러나 그 형태를 명백히 알 수 없는 자유구조일 것이다. 그는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서신서를 분석한다.<sup>26)</sup>

프롤로그 — 생명의 말씀 1:1-4	
빛가운데 행함	1:5-2:2
제명의 준수	2:3-11
신자의 새 신분과 세상과의 관계	2:12-17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2:18-27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	2:28-3:3
하나님의 자녀의 죄없음	3:4-10
신자의 표식으로서의 형제사랑	3:11-18
확신과 순종	3:19-24
진리의 영과 거짓 영	4:1-6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4:7-12
확신과 신자의 사랑	4:13-5:4
확정된 참 믿음	5:5-12
신자의 확신	5:13-21

22) Marsball, I.H., 앞의 책, p. 26.

23) 앞의 책, p. 27.

24) 앞의 책, p. 27.

25) 앞의 책, p. 27.

26) Marshall, I.M., 앞의 책, p. 26.

## 5. 간단한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요한일서의 구조를 밝혀내려는 시도는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연속적인 논증의 흐름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 F.F. Bruce의 말을 연상시킨다.<sup>27)</sup> 이런 현상은 심지어 본 서신서가 나선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동일하다. 그들이 제시한 구조 가운데 어느 것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요한일서에는 외형적으로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는 것인가?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요한일서가 아무런 저작 의도없이 무계획하게 쓰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동일저자의 문서로 알려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요한일서에도 구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28)</sup> 또 저자가 일정한 저작목적에 맞게 일정한 계획 아래 본 서신서를 기록했음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해서 그 구조라는 것이 반드시 기계적이거나 또는 치밀한 외형적 논리 형태를 가져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적어도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본 서신서의 구조를 추적하고 또한 앞서 제시된 주석가들의 구조 분석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할 때 적어도 우리는 몇가지의 중요한 일치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몇 사람의 예외는 있으나 R. Law를 위시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본서신서를 3구분한다.<sup>29)</sup>

둘째, 제 1부는 2:17, 또는 27-29절에서 끝나는데 2:18-28을 앞의 단락에 연결되는 것으로 볼 때 27-29절이, 그리고 뒤의 단락에 연결되는 것으로 볼 때는 2:17절이 제 1부의 종결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 3부는 4:1이나 4:7에서 시작된다. 여기서도 모든 주석가들이 한 단락으로 인정하고 있는 4:1-6이 앞의 단락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뒷단락과 관련된 것인지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일치사항과 함께 문제점도 없지 않다. 대체로 본 서신서를 3구분하는데는 일치하나, 첫째 그 세 개의 각 부분을 단일주제 아래 묶는데는 각기 견해가 다르다. 이것은 그 각 부분의 주제적 통일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며, 큰 단락 안의 작은 단락들의 상호

27) Bruce F.F., *The Epistles of John*(London: old Tappan, 1970), p. 29.

28) Brown, R.E., 앞의 책, p. 117.

29) Brown을 앞의 책, p. 118에서 본서신서의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구조가 상분구조라고 하였다.

관련성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3구분의 단락 구분을 지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점이다. Coetzee는 4구분, Houlden은 7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주석가들이 본 서신서의 구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어떤 구조유형이 타당한 것인가? 과연 본 서신서는 어떤 것을 지지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상의 일치점과 의문점으로부터 출발해서 본 서신서의 전체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고 단락구분을 시도해야 한다.

### III. 요한일서의 문맥과 단락의 구분

#### 1. 단락의 구분

본 서신서와 같이 전체 구조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할 일은 전체 본문을 살펴보고 일정한 주제를 담고 있는 분명한 단락들을 찾아 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단락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문맥과 상호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

우선 2:12-14, 15-17, 그리고 4:1-6 등은 각각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견고한 단락을 형성하고 있다.<sup>30)</sup> 2:12-14는 믿는 자들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15-17은 믿는 자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룬다. 4:1-6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구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세 개의 단락은 각각 그 앞 단락과 뒷단락과의 연결부분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로 2:12-14, 15-17을 중심으로 해서 1:1-2:11과 2:18-28(또는 27, 29) 등 두개의 큰 단락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두번째로, 4:1-6을 중심으로 해서 3:1-24와 4:7-5:3, 그리고 5:4-21등 3개의 단락을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1:1-2:11, ② 2:12-17, ③ 2:18-29, ④ 3:1-24, ⑤ 4:1-6, ⑥ 4:7-5:3, ⑦ 5:4-21

물론 이러한 단락구분도 하나의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sup>31)</sup> 그러나 이런 시도는 본서신서 전체에 구조와 단락 간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데, 그리고 정확한 단락구분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0) Brown, R.E., p. 118.

31) Kümmel은 T. Häring의 구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것마저도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앞의 책, pp. 436-437.

#### 2. 단락과 그 내용

① 1:1-2:11;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1:5)는 진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요 주제로 다룬다. 하나님이 빛이시므로 그와 참된 사귀를 갖는 자는 빛가운데 행해야 한다. 이 주제는 죄, 계명, 형제사랑의 아이디어와 함께 연결된다. 즉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는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를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계명을 지켜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다.

여기서 1:1-4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에 대해서 진술하며 예수와 그의 말씀을 전하는 근본 이유를 밝힌다. 1:1-4에 1:5-2:11의 중심단어인 *κοινωνία*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신서 전체의 서론보다는 1:5-2:11의 서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2)</sup> 그러나 실제로 "사귀어"는 본 서신서 전체의 중요 주제인 확신, 영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 1:1-4에서는 사귀어 그 자체보다는 예수에게 관심의 초점이 모아져있고, 객관적으로 그 예수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서신서 전체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실제로 저자는 여기서 예수의 목격자로서, 예수와 그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는 예수와 같은 사귀어 갖고 있으며 심지어 그의 육체를 만져보기까지 한 참 증인이다. 그 예수와 말씀을 전함으로서 수신자들도 저자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갖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② 2:12-17; 서신서의 수신자들이 이미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두번씩 반복해서(12-13; 14) 확인해주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말해준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2:18-29; 적그리스도와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는 교훈이 주어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들어왔던 그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본래의 가르침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3:1-3:24; 3장 전체에서는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권면한다. 그것은 첫째,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둘째, 형제를 사랑해야 하며, 셋째, 계명을 지켜야 한다.

32)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1:1-4를 본 서신서의 서론부분으로부터 J.C. Coetzee는 1:1-2:24의 서론부분(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으로 받아들인다. 본 논문 p. 12참조.

이 단락에서는 3:23에서 계명의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본 서신서가 기록된 두가지 목적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4:1-6;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문제를 다룬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이 단락을 2:12-17과 함께 서신서의 전체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또 그 앞의 부분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뒷 부분에 속한 것인지 하는 문맥상의 전후 문맥과의 연결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앞 부분인 3:24에 *πνευμα*가 등장하고 곧 이어 4:1에서 다시 *πνευμα*가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앞의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5)</sup>

⑥ 4:7-5:3;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사랑을 중심 주제로 취급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보내신데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⑦ 5:4-12; 여기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의 중요성을 밝힌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그가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을 이긴다. 그 아들을 믿는 자, 즉 그 속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5:12-21은 결론부분으로서의 본 서신서의 기록목적에 밝히며 서두에서 제시된 '영생'이 곧 예수이심을 밝혀준다.

이상의 7개의 단락들과 그 내용이 서신서 전체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본 서신서의 전체 구조의 유형과 직결된 문제이다. 동시에 이것은 본 서신서의 기록목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단락을 통해서 저자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본 서신서의 기록목적에 귀납적으로 추론해볼 필요가 있다.

#### IV. 요한일서의 기록목적과 구조

저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본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sup>34)</sup> 그 이단은 거짓선지자, 직

그리스도라고 불리워진다(4:1, 2:18). 그들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갈라져 나갔으나(2:19) 그들의 위험한 영향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4:1이하). 그들에 대한 저자의 공격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잘못된 신학적 오류가 기독교론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우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2:22) 나아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4:3) 따라서 그들은 영지주의자로서 특히 가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다.<sup>35)</sup>

저자는 이러한 기독교 영지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독자들에게 본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참된 신앙고백을 유지하기를 바란다(2:21-27; 4:4-6). 이것이 본 서신서의 중요한 기록목적이다.<sup>36)</sup> 그 참된 신앙고백이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2:22)라는 고백에 대한 반영지주의적 표현(anti-Gnostic expression)이다.<sup>37)</sup>

저자는 5장에서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5:6-8)라고 함으로써 그가 육체로 오셨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그 분을 주목해서 보았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고 한다(1:1).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증거되었다(5:9). 곧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자는 독자들이 이미 받은 예수에 대한 정통적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 뿐 만 아니라 저자는 독자들이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을 가진 자들로서 이미 참 생명을 가진 자들임을 확신시키려 하고 있다.<sup>38)</sup> 그러므로 그들은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므로 잘못된 가현설적 기독교론(Docetic christology)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저자의 이러한 기록목적에 비추어 볼때 2:18-29; 4:1-6이 영지주의자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가졌으면서도 동시에 기독교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개의 단락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정통 기독교론을 강조한 반면 5장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2:18-29; 4:1-6; 5:4-12가 기독교론적 논제(Christological thesis)라는 동일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자는 독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신앙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사

33) Houlden, J.C., 앞의 책, p. 23.

34) Marxsen, W., 앞의 책, p. 261.

35) Kümmel, W.G., 앞의 책, p. 441; Ladd, G.E.,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Grand Rapids: Eerdmans, 1977), p. 609; Marxsen, w., 앞의 책, p. 261.

36) Marxsen, w., 앞의 책, p. 263.

37) Marxsen, w., 앞의 책, p. 263.

38) 5:11-13.

실을 강조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자세하게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멀리하고, 계명을 지키며 또한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서 특히 형제사랑이 강조되고 있다.<sup>39)</sup>

ἀγάπη가 18번, ἀγαπαω 28번, ἀγαπητός가 6번, 도합 52번이나 사랑에 대한 어휘가 나타난다.<sup>40)</sup> 이것은 ἐντολή가 14번, ἁμαρτία(17번), ἁμαρτάνω(10번)가 도합 27번 사용된 것과 비교할 때도 알 수 있다. 물론 단순한 양적인 비교를 통해서 형제사랑의 우위를 말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저자가 여러 부분에서 반복해서, 그리고 많은 분량으로 무엇인가를 말했다면 그것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했음에 틀림없다. 저자는 2:9-11; 3:10-24; 4:7-5:3등 주요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형제사랑을 다루고 있다(4:7-11은 하나님의 사랑).<sup>41)</sup>

저자는 3:23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온 “계명”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그 계명은 첫째, 기독교론적이며 둘째, 형제사랑이다. 그는 말하기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3 καὶ αὕτη ἐστὶν ἡ ἐντολὴ αὐτοῦ, ἵνα πιστεύσωμεν τῷ ὀνόματι τοῦ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οῦ καὶ ἀγαπῶμεν ἀλλήλους, υἱοῦ αὐτοῦ καθὼς ἔδωκεν ἐντολὴν ἡμῖν. 라고 하였다. 이 귀절은 저자 자신이 본서신서에서 강조하고자 한 두가지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기독교론적 논제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윤리적 논제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 논제에는 형제사랑 뿐 아니라 죄로부터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 이 사실은 1:5-2:11과 3:1-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2:11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귄의 조건으로서 형제사랑을 포함한 세 가지의 윤리적 명령이 주어진다. ① 죄의 고백과 용서(1:6-2:2), ② 계명의 준수(2:3-6), ③ 형제사랑(2:8-11)

39) Ladd, G.E., 앞의 책, p. 609; 그는 요한일서의 대적자들은 영적 자부심과 교만때문에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했다고 한다.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윤리적 잘못이었고 이 때문에 형제사랑이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 L. Morris, *New Testament Theology*(Grand Rapids: Zondervan Pub, 1986), p. 290; D. Guthrie는 유사 영지주의 체계(Gnostic-like system)의 입회자들이 가진 자부심을 상쇄시키고자 형제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앞의 책, p. 871.

40) Bachmann and Slaby, H.(eds.), *Computer-Konkordanz Zum Novum Testamentum Graece Von Nestle-Aland*(Berlin: Walterde Gruyter, 1980), pp. 10-14.

41) Morris, L., 앞의 책, p. 290.

3:1-24에서는 장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거론하면서 다시 세 가지가 강조된다. ① 죄를 범하지 말라(3:3-10), ② 형제사랑(3:11-20), ③ 계명의 준수(3:21-24)

3:23에서 계명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 형제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시된다. 계명은 4:7-5:3에서도 형제사랑(4:21) 하나님의 사랑(5:2, 3)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4:7-5:3부분이 윤리적 논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상의 관찰과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형제사랑과 함께 죄를 범하지 말라,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은 기독교론적 논제와 비교해서 윤리적 논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1:5-2:11; 3:1-24; 4:7-5:3은 윤리적 논제, 2:18-29; 4:1-6; 5:4-12은 기독교론적 논제이다.

셋째, 윤리적 논제와 기독교론적 논제는 서로 깊은 관련성은 없으나 하나의 쌍으로서 커다란 사이클(cycle)을 이룬다.<sup>42)</sup>

이상의 사실에 근거해서 본 서신서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서론 1:1-4

A. 제 일 사이클(1:5-2:29); 하나님과의 사귄과 빛가운데 행함

1. 빛가운데 행하는 삶(1:5-2:11)
  - (1) 죄의 고백과 용서(1:5-2:2)
  - (2) 계명의 준수(2:3-6)
  - (3) 형제사랑(2:7-11)

부록: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삶의 태도(2:12-17)

2.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2:18-29)

B. 제 이 사이클(3:1-4:6); 하나님의 자녀됨과 소망

1. 자녀로서의 삶(3:1-24)
  - a. 하나님의 자녀와 소망(3:1-2)
  - b. 자녀로서의 삶(3:3-24)
    - (1) 죄를 범하지 말라(3:3-10)

42) 본 서신서의 구조를 윤리적 논제와 기독교론적 논제, 둘로 구성된 세계의 사이클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T. Häring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본문과 문맥에 대한 관찰과 분석에서 추론된 것이다. 또 나는 각 사이클을 윤리적 논제, 기독교론적 논제라는 인위적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명칭을 사용했다.

(2) 형제사랑(3: 11-20)

(3) 제명의 준수(3: 21-24)

2.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분별(4: 1-6)

A. 제 삼 사이클(4: 7-5: 12); 사랑과 믿음

1.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사랑

(1) 하나님의 사랑(4: 7-4: 10)

(2) 형제사랑(4: 11-5: 3)

2.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영생(5: 4-12)

(1) 세상을 이기는 믿음(5: 4-5)

(2) 예수님과 하나님의 증거(5: 6-12)

결론 5: 13-21

① 기록목적 5: 13

② 기도와 중재 5: 14-17

③ 영생-예수 그리스도 5: 18-21

## V. 결 론

- 1) 본서신서는 예수에 대한 정통신앙의 유지와 형제사랑의 고취라는 두가지 목적에서 기록되었다.
- 2) 저자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복' 구조유형을 사용하되 그 두가지 목적에 맞게 윤리적 논제와 기독교적 논제를 교체적으로 일정하게 배열해 놓았다. 그 두 부분은 외면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하나의 쌍을 이루어 커다란 사이클을 형성해서 반복구조유형을 뒷받침하고 있다.
- 3) 2: 18-29, 4: 1-6은 이단에 대한 경계의 부분으로서 본 서신서에서 구조단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둘째 사이클이 3: 1에서, 또는 2: 28(29)에서 셋째 사이클이 4: 7에서 시작된다.
- 4) 그러나 이러한 구조제시도 본 서신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서신서의 구조를 너무 정연하게 분석해내려 해서 안된다. 왜냐하면 그 시도가 지나쳐서 본문을 가설적인 구조에 맞추려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구조는 본문으로부터 추론되어야 하며 또 본문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밝혀내려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확하고 치밀해보이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왜곡시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본문의 의미 그대로를 밝혀내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The Greek New Testament* 3, edd. K. Aland, M. Black, C.M. Martini, B. M. Metzger, A. Wikgren; Londo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75.
- Bachmann, H. & Slaby, H, (eds), *Computer-Konkordanz Zum Novum Testamentum Graece von Nestle-Aland*, 3rd ed. Berlin: Walter de Gruyter, 1980.
- Brooke, C.A.E., *The Johannine Epistles*(The Internati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80.
- Brown, R.E., *The Epistles of John*(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 Co., 1982.
- Bruce, F.F., *The Epistles of John*, Old Tappan/London, 1970.
- Bultmann, R., *The Johannine Epistles*(tr, by R. Philip, O' Hara, L.C. McGaughy & R.W. Funk),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3.
- Coetzee, J.C., *Theme and Structure of I John*(이승미 교수, 성경해석학 강의안, 부산: 고신대학 대학원, 1988)
- Guthrie, D., *New Testment Introduction*, Illinois: IVP, 1970.
- Houlden, J.L., *A Commentary on the Johannine Epistles*, New York: Harper & Row Pub., 1973.
- Kümmel, W.G.,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tr. by H.C. Kee), New York: Abingdon Pres, 1973.
- Ladd, G.E.,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ms, 1977.
- Marshall, I.M., *The Epistles of John*(The New Internati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ms, 1984.
- Marxsen, W.,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tr. by G. Buswel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6.
- Morris, L., *New Testament Theology*, Grond Rapids: Zondervan pub., 1986.
- Harrison, E.F., *신약개론*, 정성구역, 서울: 세종문화사, 1982
- 김철손외, *신약성서개론*, 서울: 대학기독교서회, 1981